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신부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 지 민* · 최 연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조사에서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임신부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호소하였으며, 양육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양육 정보습득 문제, 문화적 양육차이, 양육 지지체계의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Seong, 2007).

Lee (2005)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은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여 신생아양육이 더 큰 어려움임을 지적하였다. 신생아 양육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Choi, 2002).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이 있으므로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 돌보기를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hoi & Hong,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장애로 인하여 가족지지체계로 부터의 배울 모델이 상실되었으며, 임신 기간에

신생아 양육에 관한 학습의 기회가 없고 출산 후 신생아를 돌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첫아이를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Cho (2002)의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은 분만 후 모성역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의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신생아의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4).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및 신생아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의 환경은 결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친다. 양육환경은 시간, 문화, 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양육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4). 이러한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경험, 교육,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진다. 즉, 양육에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됨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를 절충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이중의 고통을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yeonhee@knu.ac.kr)

투고일: 2012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Yeon 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26 Fax: 82-53-421-2758 E-mail: yeonhee@knu.ac.kr

겪게 되어 신생아 돌보기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학습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다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보건간호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학적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Choi & Hong, 2006; Kim, 2007), 스트레스(Moon, Kim, & Sim, 2009; Nam & Ahn, 2011), 삶의 질(Kim, 2008; Park, Park, & Kim, 2007), 건강신념(Yang, 2010), 건강증진행위(Jeong & Lee, 2010) 등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높은 양육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임신, 분만, 그리고 양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신생아 양육 관련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 돌보기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올바른 자녀양육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신생아 양육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갈등과 언어적 이해력의 결핍으로 신생아 돌보기의 수행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Bandura (199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상황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인간의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에 따르면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은 신생아 돌보기 행동을 잘 수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Ju (2001)는 분만 후 2-3일된 산모를 대상으로 시청각 매체로 비디오 상영과 함께 소책자를 이용한 구두교육을 하였을 때 산모들의 이해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방향적인 교육은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Choi와 Hong (2006)의 연구에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구두교육과 시

범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두 군 모두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되었지만 시범교육을 실시한 군에서 구두교육을 실시한 군에 비해 돌보기 자신감이 더 크게 향상되어 구두교육보다는 시범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은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교육방법에 있어 교육책자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시범을 포함하여 쌍방향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신생아 양육에 관련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결혼이주여성 임신부에게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첫째,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를 위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신부의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며, 근접 모집단은 G시의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로서 G시 보건소의 생식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자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은 실험효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각각 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택하였으며, 연구자가 동전던지기를 하여 앞면이 먼저 나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실험군으로 할당을 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 또한 실험 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조군부터 먼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초급반 이상을 이수한 자, 둘째, 의사로부터 임신 확진받은 결혼이주여성, 셋째, 보건소에서 임신, 출산, 양육 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넷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선정함에 있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COVA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2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간 17명이었다. 연구 진행 중의 탈락자를 고려하여 각 집단간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자는 실험군 17명과 대조군 16명이었다. 실험군에서 1명은 임신오조가 심하여 3회기에 참여하지 못하여 제외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사후조사에 2명이 참여하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3. 연구 도구

1)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을 기틀로 마련하였다. Bandura (1997)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언어적인 설득, 대리경험, 직접적인 성취경험을 강조하였다.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게하고,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며, 주어진 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설득 받을 때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Kim & Park, 2000)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프로그램은 소책자, 파워포인트 활용 강의, 비디오 시청, 시범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인 언어적 설득, 대리경험 및 성취경험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강의는 언어적 설득을 제공하기 위해 소책자는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육아 관련 병어집(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2인, 국제모유수유 간호사 1인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소책자를 근거로 그림과 실물 사진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파워포인트 매체를 활용한 강의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비디오 시청은 대리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신생아 양육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신생아를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신생아 돌보기를 실시하는 장면을 비디오 촬영한 것을 말한다. 교육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시범은 성취 경험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특히 소책자 교육과 비디오를 시청한 연구대상자가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신생아 양육을 성공적으로 시범해 보임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범과정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어서 약 30분 정도는 연구대상자들이 본 연구자와 함께 교육내용에 따라 모형을 이용하여 차례로 시연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동안 중국어와 베트남어 결혼이주여성 통역사가 지원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신생아 양육 관련 내용으로 1회기에서는 신생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목욕시키기, 제대관리하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2회기는 수유하기, 트림시키기, 기저귀갈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3회기는 신생아 체온재기, 신생아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법 등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기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신생아실 간호사 1인 및 국제모유수유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번역전문컨설파사(Textcheck.com)에 의뢰하여 번역하였다. 번역된 설문지 문항에 대해 이중 언어에 능숙한 출신국별 3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토의를 하여 번역본을 검토,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번역본에 대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자와 역번역자가 원본과 역번역본을 다시 검토하여 번역본과 역번역본 간에 의미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Table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Session	Contents	Level	Methods
1st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racteristics of newborn baby • Bathing • Caring umbilicus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2nd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ding • Belching • Exchanging diaper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3rd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suring body temperature • Caring high fever • Caring vomiting • Caring diaper rash 	90min	Demonstration Watching video Lecture

(1) 신생아 양육지식

Seo (1998)가 개발한 신생아 양육지식 측정 도구에 관한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신생아 목욕시키기 3문항, 수유시키기 7문항, 기저귀 갈기 2문항, 아기의 주변환경관리 4문항,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 6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면 O 표, 틀린다고 생각되면 X 표로 대답하였고, 올바르게 대답한 문항은 1점, 틀리게 대답한 문항은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의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신생아 양육스트레스

Crnic과 Greenberg (1990)가 개발한 양육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 (PDH)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0문항 도구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이었다.

(3) 신생아 양육효능감

Pharis (1978)의 양육자신감 척도를 Lee (1987)가 번안한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8문항 도구이다.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제대관리, 트림시키기, 체온계기 등 일상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자신있다' 5점에서 '매우 자신없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총점은 최소 8점에서 최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G시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MOU 협력체결을 한 G와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실험군은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중재 4주 전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자녀맞이 교실을 운영 홍보를 하여 참여희망자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뒤,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여성들에 한해 먼저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를 동의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개별적으로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1회기 시작전에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3주간 주 1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까지 3회기 실시하였으며, 각 주별 교육진행은 파워포인트 매체를 통한 강의 20분, 비디오 시청 20분 및 모형을 이용한 시범 50분 순으로 이어졌으며,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직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전조사를 마친 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책자를 배부하여 주었으며, 3주 뒤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 실시 1주후 실험군에게 적용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어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고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 중국여성 2인과 결혼이주 베트남여성 2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2시간가량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의 결과해석에서의 문제와 연구보조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이를 다시 교정한 후 연구보조원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와 응답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원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뒤 조사를 시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w 검정결과 모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Fisher's exact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 3)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을 각각 공분산으로 하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 Between Groups N=33

Demographics	Categories	Exp.(n=17)	Cont.(n=16)	Total(n=33)	X ² or Fisher's exact test	P
		n(%)	n(%)	n(%)		
Age(yr)	≤20 - 24	5(29.4)	7(43.8)	12(36.4)	0.795	.672
	25 - 29	6(35.3)	4(25.0)	10(30.3)		
	≥30	6(35.3)	5(31.3)	11(33.3)		
Nationality	China	7(41.2)	6(37.5)	11(39.4)	0.047*	.829
	Vietnam	10(58.8)	10(62.5)	20(60.6)		
Stay in Korea (months)	≥ 12	7(41.2)	7(43.8)	14(42.4)	0.221*	.881
	13 - 24	10(58.8)	9(56.3)	19(57.6)		
Pregnancy period (months)	≥ 2	3(17.6)	4(25.0)	7(21.2)	0.081	.960
	3 ≤ - ≥6	6(35.3)	5(31.3)	11(33.3)		
	6 < - >9	6(35.3)	5(31.3)	11(33.3)		
	9 ≤	2(11.8)	2(12.5)	4(12.1)		
Residence type	Single house	4(23.5)	3(18.8)	7(21.2)	0.499	.919
	Apartment	10(58.8)	9(56.3)	19(57.6)		
	Multiple house	3(17.7)	4(25.0)	7(21.2)		
Living arrangement	With spouse	14(82.4)	14(87.5)	28(84.8)	0.170	.680
	With parents-in-law	3(17.6)	2(12.5)	5(15.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9)	1(6.3)	2(6.1)	0.081	.960
	Middle school	5(29.4)	4(25.0)	9(27.3)		
	High school	11(64.7)	11(68.8)	22(66.7)		
Subjective economic level	Middle high	6(35.3)	4(25.0)	10(30.3)	0.414	.520
	Middle	11(64.7)	12(75.0)	23(69.7)		

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16명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총 33명이다. 연령을 보면 실험군에서는 20세-24세 29.4%, 25세-29세 35.3% 30세 이상 35.3% 이었고, 대조군은 20세-24세 43.8%, 25세-29세 25.0% 30세 이상 31.3% 로 구성되었다. 국적에서는 베트남이 57.6%, 중국이 42.4%를 차지했고, 대상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13개월-24개월이 57.6% 이고 12개월 미만인 42.4% 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 임신기간은 3-5개월과 6개월-8개월이 각각 실험군 35.3%, 대조군 31.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두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거주가 57.6%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가족형태는 부부만 거주하는 대상자가 실험군 82.4%, 대조군 87.5%로 두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고졸이 실험군 64.7%, 대조군 68.8% 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실험군 29.4%, 대조군 25.0%로 구성되었다. 대상자가 주관적 경제적 상태는 대부분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대상자들의 모든 특성에서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중재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살펴보면, 신생아 양육지식에서 실험군은 평균 12.29점, 대조군은 평균 12.25점으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09, p=.931$). 신생아 양육스트레스는 실험군에서 평균 65.12점, 대조군에서 평균 65.62점으로 두 그룹 모두 중간정도의 점수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43, p=.672$).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도 실험군에서 평균 20.53점, 대조군에서 평균 20.13점으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0.58, p=.569$).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도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 효과검증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신생아 양육지식은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12.29점에서 중재 후 평균 13.53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12.25점에서 11.08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신생아 양육지식 값을 공분산으로 하여 중재 전·후 신생아 양육지식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1, p=.046$). 신생아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65.12점에서 중재 후 평균 61.65점으로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65.62점에서 65.38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신생아 양육스트레스값을 공분산으로 하여 중재 전·후 신생아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51, p=.008$).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에서도 실험군에서 중재 전 평균 20.53점에서 중재 후 평균 21.88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 평균 20.13점에서 20.01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신생아 양육효능감값을 공분산으로 하여 중재 전·후 신생아 양육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3, p=.040$).

따라서 중재 후 두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측정변수 모두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중재에 의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3. Homogeneity Tests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n=17)	Cont.(n=16)	t	P
	M ± SD	M ± SD		
Knowledge about child rearing	12.29 ± 1.45	12.25 ± 1.44	0.09	.931
Stress of child rearing	65.12 ± 3.46	65.62 ± 3.36	-0.43	.672
Child rearing self-efficacy	20.53 ± 2.07	20.13 ± 1.96	0.58	.56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Groups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Knowledge of Child Rearing, Stress of Child Rearing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between Groups N=33

Variables	Exp.(n=17)			Cont.(n=16)			F	P
	Pre M(SD)	Post M(SD)	Difference	Pre M(SD)	Post M(SD)	Difference		
Knowledge about child rearing	12.29 (1.45)	13.53 (2.10)	1.24	12.25 (1.44)	11.08 (1.52)	-1.17	3.71	.046
Stress of child rearing	65.12 (3.46)	61.65 (4.24)	-3.47	65.62 (3.36)	65.38 (3.28)	-0.24	-12.51	.008
Child rearing self-efficacy	20.53 (2.07)	21.88 (2.67)	1.35	20.13 (1.96)	20.01 (1.99)	-0.12	4.03	.04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IV.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생아 양육 관련 신생아 돌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한 뒤 그 효과를 신생아 양육지식 변화, 신생아 양육 스트레스 변화 그리고 신생아 양육효능감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신생아 양육지식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3.71, p<.05$). Kwak (1996)의 연구에서 병원을 내원한 임신부에게 '훌륭한 부모되기' 산전교육을 제공한 결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이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Cho, Lee와 Lee (1999)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모가 받지 않은 산모보다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Park과 Lee (2002)의 연구에서 임신부들에게 임신과 분만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 주고 질문에 응답한 뒤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가 향상과 유사한 결과이다.

Kim (2006)의 연구도 산전간호프로그램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영아 성장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영아의 성장과 발달진전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Park과 Kim (2000)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 분만 및 양육 등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산전 자가간호 행위수준이 높고 산후 양육의 긴장감이 낮아졌다고 하

였으므로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들에게 임신, 분만 및 양육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들의 자가간호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 양육스트레스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에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2.51, p<.01$). Lee (2003)의 연구에서도 초산모에게 산욕기 비디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산욕기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Jung (2003)의 연구는 초산모들에게 산전간호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초산모들의 산전간호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불안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2006)에서도 임신부들에게 모형을 활용한 시범 교육을 제공한 후 산모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신부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여 임신부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임신, 분만과 관련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임신과 분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 분만, 양육을 경험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낮은 교육수준과 언어적 취약성으로 임신이나 분만,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간호사의 중재가 더욱 필요하다.

신생아 양육효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전에

비해 교육후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4.03, p<.05$). 신생아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Choi (2001)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소책자만을 제공하는 집단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욱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Kim과 Jeong (2007)의 연구에서는 산육기 모성을 대상으로 소책자를 이용하여 보건교육하였을 때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신생아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 않았다. 다른 Choi와 Hong (2006)의 연구에서는 시범교육을 실시한 군에서 구두교육을 실시한 군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크게 향상되어 구두교육보다 시범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Ju (2001)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에게는 비디오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대조군에게는 실험군과 같은 시간 동안 책자를 제공하고 구두교육을 하였을 때 산모들의 이해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방향적인 교육은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범은 교육책자만을 이용하거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비해 쌍방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 (2005)의 연구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관에서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인 임신과 분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요구의 질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임신, 분만, 육아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 중재 후 이들의 신생아 양육지식과 신생아 양육자신감이 향상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임신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에서 교육방법적으로 소책자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단순한 지식제공 교육보다는 결혼이주여성 임신부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언어적 설득, 대리경험 및 성취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신생아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계이다.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신생아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생아돌보기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들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높이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18명 이하로 중재하였으므로 충분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대상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 연구자료수집을 보조자에 의존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효과검증 시기가 프로그램 종료직후이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시간이 지난 시점의 효과유지를 위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W. H. and Company.
- Cho, K. J., Lee, K. J., & Lee, O. J. (1999).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5, 84-96.
- Cho, E. A. (2002). *Education needs and education satisfaction of users in the*

- post-partum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Choi, J. H. (2001). *Effect of postpartum education program on primiparas'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the postpartum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 Choi, K. A. (2002). *Comparative study of the discharge teaching program on newborn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O. H. & Hong, D. A. (2006). Educational effects on improvements of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s for healthy families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0*(3), 63-78.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Jeong, N. O. & Lee, M. H. (2010). A predictive model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women who immigrate for marri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0*(5), 695-704.
- Ju, H. S.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maternal satisfaction with the mode of newborn care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ng, M. S. (2003).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on knowledge, anxiety, labor pain and self-cooperation in primipara and husband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7*, 99-114.
- Kim, E. H., Lee, E. J., & Kim, M. J. (2010).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0*(1), 78-87.
- Kim, H. J.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foreign women to Korean society through marriage to Korean nat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Gwangju.
- Kim, H. J. (2008). A study of soci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4*(1), 5-11.
- Kim, H. K. & Jeong, I. S. (2007). Effect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7*(1), 125-134.
- Kim, J. H. & Park, Y. S. (2000). The effect of aerobic rhythmical exercise program on physical fitness,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4*(1), 12-25.
- Kim, T. I. (2006). Development and test of effectiveness of a prenatal role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 104-114.
- Kwak, Y. H. (1996). *The effect of education on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of postpartum self-care and newbo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E. S. (198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iparou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3). *Effect of postpartum video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postpartum care in primipar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Lee, S. A. (2004). *A study on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newborn care of newborn's*

-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Lee, T. H. (2005). *A study on the family and the social network for the immigrated women: The focus about the women in Yeongkw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University, Kwangju.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2008 Customized visiting health service guidebook*. 117-118. Seoul: Author
- Moon, S. S., Kim, C. H., & Sim, M. G. (2009).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for help of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3*(1), 101-112.
- Nam, I. S. & Ahn, S. H. (2011).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7*(2), 99-108.
- Park, C. H. & Lee, C. U. (2002). Effect of antenatal education on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 34-54.
- Park, M. S. & Kim, H. W. (2000). A study on primigravida's antenatal self-care behavior and maternal knowledg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 153-165.
- Park, J. S., Park, O. I., & Kim, J. H. (2007).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Journal Korean Home Manage Association, 25*(6), 59-70.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Seo, Y. M. (1998).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primiparas' knowledge, confidence and accuracy of behavior in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Seong, D. H. (2007). *Married immigrant women family stability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Yang, S. J. (2010).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323-335.

ABSTRACT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Lee, Gi M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un)

Choi, Yeon Hee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mo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Methods:** The subjects were 23 immigrant pregnant women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D city. The program was provided, once a week for 90 minutes for a period of 3 weeks. The outcome variables were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4 to June 24, 2011,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sults:** The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child 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newborn care self-efficacy for married immigrant pregn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ompared to women who did not participat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 rearing stress, and child rearing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pregnant women.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be presented to married immigrant woman at public health centers to enhance their confidence in child-rearing.

Key words : Immigrant, Women, Child-rearing, Stress, Self-efficacy